

---

# 2022년 제12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2. 3. 18. ~ 3. 2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3. 18.	시청률	0.081

### 【총 평】

‘경제&이슈’는 2월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반가운 경제 이슈를 전달하며 주목을 끌었다. 특히 업종별, 연령별 고용 현황과 고용 시장 훈풍을 이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경제 동향을 분석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그 밖의 경제이슈에서는 국세 수입, 세수가 증가하게 된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증가한 세수의 품목이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라는 점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뜰신잡’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에 대해서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최근 WHO에서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전주 대비 8% 증가’라고 발표했다. 동남아시아 등 줄어드는 지역이 있는 반면 늘어나는 지역은 폭증하고 있다. 남태평양 연안 국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아프리카 역시 확진자가 증가추세이며 유럽도 2%나 증가했다. 국내 역시 17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621,328명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중증으로 가는 환자의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병원 시스템에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이슈’에서는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3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역대 2월 중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뚜렷한 고용 개선세가 나타났다. 고용지표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15세부터 64세까지 전 연령대가 12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업종별로도 임시직과 자영업자가 증가했고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감소해 고용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서비스 업종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2~39대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전 연령대 고용률이 7개월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은 3.9% 증가했고 30대 고용률도 50대보다는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전 연령 고른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용의 질도 높아졌는데,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1,455만 7천 명으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고용 안전망 강화의 노력의 결과이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는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 추경을 통해 마련된 지원 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세수 확대 배경을 전했다. 1월에는 50조 가량이 더 걷혀서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8천억 원 증가했고 이는 우리 경제가 회복됐다는 증거이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3. 18.	시청률	0.050

## 【총 평】

초등학교 입학과 새학기를 맞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무질서 현장을 고발한 '어린이 보행사고 위험' 소식을 비롯해 폐허로 변한 동해 관광마을의 산불피해 현장,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유냉장고,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가 풍부한 문화예술 분야 아이템 등 시의성, 다양성, 캠페인성을 살린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개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대책을 집중 조명한 구성은 어린이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켰고, 경찰청에서 새학기를 맞아 안전 보행 지도에 나선다고 전했다. 동해 등대마을 산불 피해는 관광마을 산불 피해 현장의 안타까움과 소방관과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을 집중 부각한 점이 돋보였다. 이밖에 공립예술중학교, 국악 뮤직비디오 지원, 발달장애인 작가와 함께해요 특별한 문화갤러리 등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에 빠진 있는 문화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이টে이었다.

## 【구성 및 내용】

### ■ 초등학생 '방과후 보행사고' 주의

어린이 보호를 소홀히 하는 운전자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차량을 중점단속하고 교통안전 지킴이를 모집해 등하교시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안전보행 지도를 하기로 했다.

### ■ 나누면 커지는 사랑 '음식 공유' 문화 확산

서울시 관악구의 주택가 골목에 음식을 공유하는 그린냉장고가 있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넣어두면 누구든 가져갈 수 있다. 음식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공유냉장고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 전국 최초의 '공립예술중학교' 광주에 탄생

광주광역시 북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예술중학교가 문을 열었다. 올해 첫 신입생 선발에서 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생님들은 학생 맞춤형으로 개인별 지도를 해준다. 개인연습실도 있으며, 학비 전액을 시교육청이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덜었다.

### ■ 한국의 명소, 국악 뮤직비디오로 만나볼까?

국립국악원은 전통 공연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연활동,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필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50개 팀의 영상은 지역명소와 국악이 어우러져 한국을 널리 알리고 국악인들의 국내외 진출을 넓혀주고 있다.

### ■ 발달장애인 작가와 함께해요, 특별한 문화갤러리

발달장애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은 이들을 세상과 이어 주고 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비영리단체 아트림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갤러리는 작품전시를 통해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3. 19.	시청률	0.000

### 【총 평】

‘세계를 점령한 K-좀비’편에서는 최근 예고편 조회수 18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특히 스토리와 관전 포인트, 역대 K좀비 열풍 콘텐츠 다시 보기 등을 세밀하게 분석 진단함으로써 K좀비의 현주소와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K좀비를 알린 ‘킹덤’ 시리즈를 살펴보고 한국 좀비와 외국 좀비를 비교 분석한 부분이 K좀비를 보다 실체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데이브의 V-로그’는 한국 전통기념품이 궁금하다는 사연을 듣고 한국전통소품체험장을 찾아 붓글씨와 낙관으로 족자를 만들어 한국 드라마 콘텐츠와 함께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세계인이 열광하는 K-좀비에 대해 알아봤다. 좀비물인 ‘지금 우리 학교는’은 예고편 영상 유튜브 조회수 1,800만 뷰를 기록했으며, 190개 국가에 공개된 OTT 채널에서는 5주간 비영어권 작품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지금 우리 학교는’은 고딩 좀비, 교복 좀비, K-좀비 등 수식어 많다. K-콘텐츠 열풍이 일회성이 아님을 증명한 작품이다. K-좀비 드라마가 성공한 이유로 외국 좀비물에 비해 빠른 움직임, 사연 있는 좀비, 철저한 준비, ‘킹덤’에서 보여 준 시대상을 반영한 구성 등을 꼽으며 분석을 통한 성공요인을 제시한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지금 우리 학교는’은 웹툰을 원작으로 이재규 감독이 영상화한 작품이다. 이재규 감독은 “학생들이 주인공인 좀비물은 거의 없다.”며 “폐쇄공간,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공간에 벌어지는 이야기다. 그 아이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좀비가 된 친구들을 봐야하고, 그들로부터 도망가야 하고, 살기위해 사투하는 모습들은 일반적인 좀비물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규 감독은 주무대인 학교를 발랄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연출했고, 장소마다 라이팅과 미술적인 색감 표현에 주력했다. 이러한 것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100m에 가까운 세트를 지었다. 실제 4층짜리 학교가 지어졌다. 붉은 피와 녹색교복의 보색대비를 통해 강렬함을 주려고 노력했다. 또 좀비로 변하는 배우는 별도로 좀비 안무 연습을 시켰다. 배우들이 수 없이 연습해 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재규 감독은 ‘지금 우리 학교는’을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는 “사운드디테일이 좋아 평소보다 사운드를 키우고, 주변은 어둡게 하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달린다 데이브의 V-로그’는 아르헨티나에 사는 악셀이 전통 기념품을 만들고 싶다는 사연을 듣고 한국 전통 소품 체험장을 찾았다. 이 곳에서 데이브는 전통 족자 만들기와 도장 만들기에 도전했다. 먼저 붓글씨를 배운 다음 족자에 ‘데이브가 간다.’를 쓰고 도장을 만들어 낙관까지 찍어 족자를 완성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3. 19.	시청률	0.021

### 【총 평】

‘숲속에 흠집을 짓자 생긴 일’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서 흠과 돌로 집을 지은 부부의 행복과 희망을 들여다보았다. 귀촌 14년 차 부부의 독특한 형태의 집짓기 과정과 둥근 흠집에서 여유로움을 찾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귀촌을 하면서 자신이 살 집은 직접 짓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가족 모두의 시간과 땀으로 빚어낸 매력적인 흠집 한 채를 완성했다.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부부의 행복과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으며, 봄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와 토끼와 닭, 비둘기가 함께 살고 있는 동물 농장을 잘 담아냈다. 또한 군청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둥근 흠집에서 마음을 나누는 이웃들과의 모습을 행복하게 그려냈다.

### 【구성 및 내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에는 이곳의 흠과 돌로 집을 지은 부부가 살고 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든 흠집 덕분에 부부의 인생이 달라졌다. 직접 지은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아내의 뜻을 따라 집을 짓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 집을 자연 생태의 집이라 부르고 있다. 둥근 집을 중심으로 구들방, 거실, 화장실, 주방이 딸려있다. 흠집은 어둡기 때문에 창을 높게 내어 일조량을 늘렸다. 그래도 이집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고 한다. 이 집을 인연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새로운 인연들이 만들어지면서 부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남편은 “처음엔 막연했지만 살다보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며, “단지 오기 힘든 두려움이 더 큰 것이지 막상 와 보면 진짜 할 게 많다”고 말했다. 아내는 “내가 지은 집을 통해서, 내가 가꾸는 정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울 수가 있구나.”라고 말했다.

숲속에 살면서 아내는 야생화 정원을 갖추었다. 여름이면 초록으로 무성해질 이곳이 봄을 맞고 있다. 부부가 온 정성을 다해서 가꾸는 정원에는 각종 허브를 비롯해 매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다. 부부는 60여 가지의 꽃차를 만들고 원예용 버들강아지를 다듬어 파는 등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식용 꽃은 온실에서 기르는데 이렇게 해야 꽃이 상하지 않고 예쁘게 자란다. 남편은 목공일을 시작한 것이 취미가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만든 것들을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목공 교실도 운영한다고 한다. 오솔길 자락에 있는 동물농장에는 토끼와 닭, 비둘기가 있는데, 식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집의 또 다른 식구 마음이는 서양 냄새 풀풀 나는 중형견이다. 북실북실한 털 때문에 표정이 읽혀지지 않는다. 매일 아침 부부의 산책길에 동행하는데, 목줄 하나 없이 마음껏 숲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니 이 동네에서 제일 행복해 보인다. 부부는 귀촌해 멋진 흠집 한 채를 지었고, 정원을 만들어냈다. 그 덕분에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며 자신들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쌓아나가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3. 20.	시청률	0.079

### 【총 평】

최근 북한의 금강산 시설인 해금강 호텔 철거 내용과 의미, 우리 정부 입장,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 진단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해금강 호텔이 어떤 시설이고 철거가 왜 남북관계를 냉랭하게 하는지, 이에 대한 남북관계 해결책은 무엇인지 전달했다. 특히 해금강 철거 사실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고, 북한의 위생사업을 다룬 영화를 보여준 점 등이 북한의 실상을 실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슈텔링’에서는 북한의 코로나19로 강화된 개인위생 모습, 북한주민의 단체 꽃구경 등 봄맞이 풍경 등 최근 실상을 제대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친절한 이슈 토크’는 최근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 시설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 위성사진, 해금강 선상호텔, 철거에 대한 남북 분위기 한국정부의 반응 등의 내용을 전했고, ‘한반도 이슈텔링’은 북한의 봄맞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전후의 북한 위생사업, 방역에 대한 민간요법, 꽃구경 등에 대해 소개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금강산 관광지구의 해금강 호텔은 2000년 금강산 관광사업 초기 준공된 시설인데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시찰 이후 철거 통보가 있었다. 해금강 호텔은 바다에 떠 있는 호텔로 세계 최초의 수상호텔로 7층 짜리 건물이다. 배를 호텔로 개조한 느낌으로 객실도 작고 복도도 좁지만 금강산 바로 옆에서 숙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년 만에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인해 관광산업의 특성상 호텔뿐 아니라 남측의 투자로 조성된 각종 부대시설도 활용처가 없어진다. 현대아산뿐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고성군도 피해를 입었는데 모두 2조 5천억 원 정도의 피해가 추산된다. 2008년을 기준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당시에는 몇 개월 내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있어보였다. 더불어 관광사업을 철수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 해금강 호텔의 이전을 생각할 수 없었다.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보다 남북 협의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봄맞이를 살펴보면 북한은 3~4월이 위생월간 기간으로서 공장, 학교, 집에서 대대적인 위생사업을 진행하는데, 위생검열이 오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위생검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검열이다. 위생검열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딱지가 집에 붙는다. 불합격의 경우 합격을 받을 때까지 청소를 하고 인민반장에게 보고한다. 합격을 받고 청소가 잘 되고 잘 관리된 집의 경우 선군생활문화 모범가정 표창장이 수여된다. 북한도 봄에 꽃들이 만발하면 꽃구경을 하는데, 소규모 가족이 아니라 학교, 공장, 회사, 작업반 등 단체로 꽃놀이 소풍을 간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3. 20.	시청률	0.064

### 【총 평】

‘독일에서 온 한옥 건축가’와 ‘대한 독일인의 추억’에서는 한옥 건축가인 독일인 다니엘 텐들러로부터 한옥의 매력부터 건축 비용까지 한옥 건축에 관한 이야기와 그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한국과 독일의 혼혈인으로 그가 얘기하는 정체성과 우리 전통 한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파독 간호사인 어머니와 독일인 의사인 아버지의 만남으로 한국 역사의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금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했다. 독일에서 배운 한옥 스토리와 독일 전통 가옥에 대한 인식과 독일 교육 시스템이 귀감을 주었다.

### 【구성 및 내용】

‘독일에서 온 건축가’에서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에서 태어나 한국의 문화 특히 한옥에 호감이 높은 건축가 다니엘 텐들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어린 시절 독일의 오래된 마을에서 성장한 다니엘은 선생님으로부터 옛 건축물의 소중함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독일의 전통 가옥을 보며 옛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그는 사라져 가는 한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새로운 한옥을 짓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한국의 전통문화와 몇천년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한옥이 좋았다. 그래서 한옥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지은 한옥은 은평한옥마을의 ‘서희재’로 국토교통부 한옥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의 서울 우수 한옥’으로 선정되었다.

한옥 건축은 일반건축보다 약 2배정도 더 비용이 들어 평당 약 1,500만 원 이상으로 행정 처리 등이 복잡하지만,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독립해 동업자와 함께 건축사무소를 개업했다.

‘대한 독일인의 추억’편에서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외모적은 특이점 때문에 양국에서 외국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려서 별명이 ‘조그마한 한국 아이’였던 다니엘은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외국인인 것처럼 독일에서는 영락없는 한국 아이로 보였다. 다니엘 텐들리는 “제가 봤을 때는 외모가 서구적이기는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익힌 것과 다르게 보이는 게 먼저 눈에 띄는 법”이라며, “양국에서 모두 외국인으로 보이는 외모”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인이라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가감없는 대답을 하면서 “피부색으로 차이를 두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파독 간호사였던 어머니와 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던 아버지가 결혼해 외할머니가 6년이나 자신을 키워주셨다며 외할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도 전했다. 외할머니 덕분에 다니엘의 고향 집에는 장독도 있었고 메주도 띄어놓는 등 어려서부터 한국 문화와 음식을 많이 접하며 성장했다. 한국에 와서 힘들었던 부분은 일의 강도와 근무 환경이 독일보다는 열악하다는 점을 꼽았다. 한옥을 접목한 새로운 스타일의 집을 짓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2. 3. 20.	시청률	0.065

### 【총 평】

‘죽음을 예고하는 검은 연기 - 임실 민간인 희생 사건’편에서는 임실을 수복 이후 빨치산에 대한 군경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폐금광굴로 피신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당한 안타까운 민족적 비극을 재조명해 역사적 교훈을 일깨웠다. 특히 폐금광굴에 연기를 피워 주민을 질식사 시키고 총살 피해자들의 귀를 잘라 인원 파악을 하는 등 당시 군경의 잔혹한 진상을 고발한 부분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 당시 시대상과 배경, 역사적 교훈, 화해조치 권고 사항은 무엇인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구성이 기획의도를 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국가의 공식적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제시해 화해를 강조한 기획의도와 부합했다.

### 【구성 및 내용】

한국전쟁 전후로 정부의 혼란시기에 벌어진 임실군에서의 민간인 희생사건을 재조명했다. 군경의 잔혹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여 희생된 주민들에게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하는 내용은 당시 암울했던 시기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들은 해방 후 1948년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반대하는 전국규모의 시위인 2.7사건에 참여했다. 좌익세력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된 석두리 주변 3개 마을에서 2.7사건으로 20여 명이 희생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남산리에서 좌익세력의 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이 근거지에서 입산자들이 마을사람들의 식량을 가져가며 나중에 은혜 갚겠다고 작성한 명단이 발견되어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잡혀갔다. 경찰에 연행된 후 언제 어디로 끌려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 시절 분위기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정도로 엄혹했다. 살아남은 가족들은 빨치산가족으로 무시당하며 억울한 세월을 살았다. 한국전쟁 9.28 수복 후 군경 토벌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특히 남산 금광굴은 큰 입구 2개를 포함해 모두 32개의 출입구가 있었다. 굴은 청웅면 남산리와 강진면 부흥리에 걸쳐 있어 인근 지역 뿐 아니라 먼 곳에서도 피난을 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500여 명이 이곳으로 피난을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굴속에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군경은 마을사람들을 동원해 굴 입구를 막고 마른 고춧대와 솔잎을 3일 동안 태워 굴 안의 사람들은 대부분 질식사 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연기를 못 참고 나온 사람들도 무참히 총살당했다. 굴속에 남아있다 희생당한 피난민은 370여 명이다. 살아 나온 50여 명도 10여 일 후 멧골에서 총살당했다.

대한경찰전사에는 250명의 빨치산이 숨어 있는 폐금광을 폐쇄해 217명을 사살하고 79명을 생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폐금광에서 전투요원을 한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3. 20.	시청률	0.072

### 【총 평】

‘버려진 페트병! 아웃도어 제품이 되다’는 페페트병을 재활용하여 패션 제품을 국내 최초로 시장에 선보이며, 국내 페트병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관계자를 통해 환경과 경제를 상생하는 그린 뉴딜을 소개했다. 특히 페트병의 재활용과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인지시켰다. 또한 재활용과 탄소절감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선순환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그린 뉴딜의 좋은 사례였다. 국내에서 사용된 페트병의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 【구성 및 내용】

버려진 페트병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아웃도어 브랜드 관계자를 통해 그동안 수입 페트병에 의존하던 문제점을 개선해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기까지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 국내 페트병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통해 국내 페트병의 자원 순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원의 소중함을 되돌아 본 계기가 되었다.

스포츠 의류 및 패션 아이템들을 망라해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지난해 6월 ‘이달의 뉴딜’로 선정되었다. 특히 일본의 페페트병을 수입해서 재활용하던 고리를 끊어내고 온전히 국내 페페트병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페페트병을 처리하는 과정 중의 하나인 플레이크 화(化)하는 공정을 자체 개발한 기계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에 맞추어 ESG 경영을 하고 있으며, 자원의 선순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산 페트병이 옷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우선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한 다음 깨끗이 세척한 후 페트병을 분쇄해 작은 알갱이인 칩으로 만들고 그 칩에서 실을 뽑아 원단을 생산 후 제품을 완성해 낸다. 결국 쓰레기로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버리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서 뚜껑을 달으면 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2021년 5월 기준 국내 투명 페트병 약 2,500만 병이 재활용되었고 이는 940톤의 탄소배출을 줄인 효과를 가져왔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국가 목표인 시점에서 김재훈 팀장은 새로운 제품 개발에 더욱더 노력중이다. “히말라야 등반을 한 적이 있는데, 그곳이 자연환경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버려지는 폐의류를 활용한 새로운 의류 상품을 통해서 더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선순환 개발을 하고 있다. 정희욱 대리는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했으면 졸업논문 주제가 페트병으로 의류를 만드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등산하면서 산에서 쓰레기 줍기 등을 실천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에서 최악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페트병을 재활용해 그 속에서 숨을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환경을 위해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알려주었다.